

## 실업계 고등학교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 조사

이 용 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 혜 림(고려대학교 박사과정)

홍 후 조(고려대학교 교수)

---

### 《요약》

---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sup>1)</sup>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개선 요구를 조사한 것이며, 조사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계열 및 기준 학과, 교과 편제 및 내용 구성에 관한 것이다.

전국의 729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과 각 학과장 및 교사 2명(보통교과 1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 조사하였고, 그 회수율은 85.9%였으며, 총 2,66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각 선택형 문항은 문항별로 계열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개선 요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 기준 학과, 전문 교과 편제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와 기술 영역에 부합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 준비의 완성 교육과 진학 준비의 계속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는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에 대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통 교과 내용은 일반계와 동일하기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 교과의 내용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조직하는 것은 물론, 직무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주제어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계속 교육, 완성 교육, 요구 조사

---

---

1) 이하 ‘교육과정’이라 함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의미함.

## I.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로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학력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생 학습을 통한 능력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직업의식에 있어서도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평생 직업이 아닌 한시적 직업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평생 학습 사회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중국 교육을 지향하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또한 계속 교육의 형태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장석민 외, 2005),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2000년부터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시작하여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지역 및 학교의 특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전공 학과에 따른 특성과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고등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과 단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태주, 2003).

또한, 최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 즉,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총 이수 단위수 감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 노동 시장의 파트너십 구축, 산학 일치형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기초 능력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 등 5개 분야로 구분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 및 기술 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각 계열에 설치된 학과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학교 현장에 설치된 학과가 어느 계열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을 산업 구조 및 기술 영역에 부합되도록 재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학과 편제의 개편, 계열별 전문 교과와 신설·폐지 및 통폐합, 교육 내용의 수정·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 및 체제 개편 정책의 추진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이수 단위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교과목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교사들은 교과목의 내용과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실천가’,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계열 및 기준 학과, 교과 편제 및 내용 구성 등을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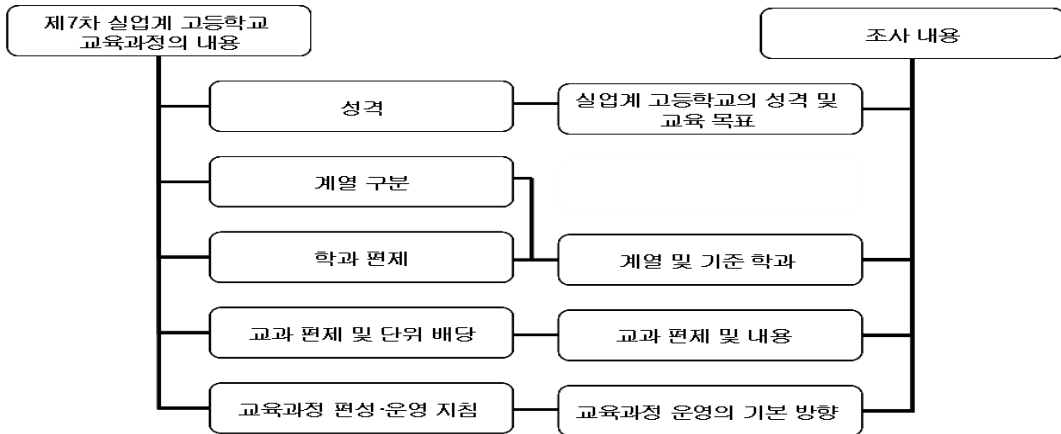
### 1. 조사 대상 및 표집

전국의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무부장 또는 연구부장), 각 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의 학과장, 교사 2명(보통 교과 1명, 전문 교과 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조사 도구(설문지)의 개발

설문지는 현행 제7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 문헌 연구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림 1]은 현행 제7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와 조사 내용을 나타낸 것이며, 조사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계열 및 기준 학과, 교과 편제 및 내용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문지 조사 항목은 <표 1>과 같다. 조사 항목은 교육과정 개선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구성하였고, 개선은 현행 학교, 계열, 전공, 교과, 과목 등 여러 수준에서 1) 유지와 2) 변화(개선)를 중심으로 하여, 변화는 다시 부적절한 것의 ①

삭제·폐지, 기존의 내용 중에서 ② 축소·약화할 것을 찾거나, ③ 확대·강화할 것을 찾는 것, 새로운 것의 ④ 추가·신설할 것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박도순·홍후조, 2006). 흔히 말하는 교육과정 개선이란 바로 이런 다양한 차원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현행 제7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와 조사 내용

〈표 1〉 설문지 조사 항목

영역	문항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li> <li>•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li> </ul>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운영 형태</li> <li>• 코스제 교육과정 도입</li> <li>•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li> <li>• 학기당 이수 과목 수</li> </ul>
계열 및 기준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 구분</li> <li>• 계열별 기준 학과 구분</li> </ul>
교과 편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li> <li>• 보통 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li> <li>•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li> <li>• 계열별 필수 과목 지정 및 명칭 변경</li> <li>• 보통 교과의 내용 구성</li> <li>• 전문 교과의 내용 수준</li> <li>• 전문 교과 내용의 산업 현장 적합성</li> </ul>
개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소재지, 유형, 계열)</li> <li>• 직책</li> <li>• 담당 교과와 학과</li> </ul>

### 3. 조사 방법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 4. 자료 수집 및 분석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729개의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 중 626개의 학교에서 3,256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590개를 제외하고 2,66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는 회수율은 85.9%이며,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학교 계열에 따라 응답자 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실업계 고등학교 각 계열의 학교 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sup>2)</sup>.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과장이 대체로 전문 교과 담당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보통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응답자는 25%정도였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 계열	농업계 고등학교	148	5.6
	공업계 고등학교	1002	37.6
	상업계 고등학교	1042	39.1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42	1.6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90	3.4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학교	342	12.8
	소계	2666	100.0
직책	교육과정 담당 부장	545	21.1
	학과장	972	37.6
	교사	1070	41.4
	소계	2587	100.0
담당 교과	전문 교과	1971	74.9
	보통 교과	661	25.1
	소계	2632	100.0

2) 전국에 설치된 각 계열별 학교 수는 농업계 고등학교 27개, 공업계 고등학교 214개, 상업계 고등학교 193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7개,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8개,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학교 280개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각 선택형 문항은 문항별로 계열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다. 반응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각 개방형 문항은 계열별로 문항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문항 분석은 응답 내용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묶어서 빈도 수를 분석하였다.

### Ⅲ. 요구 조사 분석 결과

#### 1.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 및 교육목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은 “국민공통기본 교육 등의 보통 교육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교육 함양, 전문 교육을 통하여 관련 직업 분야의 기초 지식과 기능·기술 및 태도 습득, 학생들의 기초적인 직업 능력 함양,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로 창업·취업 등의 완성 교육적 성격, 관련 전공 분야 진학의 계속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로 정의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전체 교사의 62.4%가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9.6%였다. 이러한 의견은 전체 계열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표 3>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계
농업계 고등학교	5 (3.5)	5 (3.5)	34 (23.6)	86 (59.7)	14 (9.7)	144 (100.0)
공업계 고등학교	7 (0.7)	73 (7.5)	245 (25.1)	557 (57.0)	96 (9.8)	978 (100.0)
상업계 고등학교	9 (0.9)	95 (9.4)	305 (30.1)	539 (53.3)	64 (6.3)	1012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0 (0.0)	2 (4.8)	8 (19.0)	25 (59.5)	7 (16.7)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3 (3.4)	7 (7.9)	24 (27.0)	48 (53.9)	7 (7.9)	89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5 (1.5)	39 (11.7)	111 (3.3)	151 (45.3)	27 (8.1)	333 (100.0)
계	2 9(1.1)	221 (8.5)	727 (28.0)	1406 (54.1)	215 (8.3)	2598 (100.0)

\*  $\chi^2 = 54.34$ ,  $p < 0.001$

다음으로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의견 조사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기초적인 직업 능력’이 응답자의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8.3%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기능 교육’이란 의견은 21.8%이며, ‘고등 교육 단계를 대비한 진학 교육’으로 응답한 교사는 10.8%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각 계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교육	기초적인 직업 능력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기능 교육	고등 교육단계를 대비한 진학 교육	기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67 (26.5)	101 (39.9)	46 (18.2)	38 (15.0)	1 (0.4)	253 (100.0)
공업계 고등학교	517 (30.2)	695 (40.5)	342 (20.0)	148 (8.6)	12 (0.7)	1714 (100.0)
상업계 고등학교	494 (27.5)	652 (36.4)	413 (23.0)	222 (12.4)	12 (0.7)	1793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22 (30.1)	27 (37.0)	17 (23.3)	7 (9.6)	0 (0.0)	73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48 (29.8)	56 (34.8)	41 (25.5)	16 (9.9)	0 (0.0)	161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53 (25.5)	230 (38.4)	143 (23.9)	65 (10.9)	8 (1.3)	599 (100.0)
계	1301 (28.3)	1761 (38.3)	1002 (21.8)	496 (10.8)	33 (0.7)	4593 (100.0)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완성 교육과 계속 교육의 성격을 모두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로는 ‘진학 교육’보다는 ‘기초적인 직업 능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계속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학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이에 따른 교육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첫

결음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의견은 물론,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즉,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총 이수 단위 수 감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 노동 시장의 파트너십 구축, 산학 일치형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기초능력의 강화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방향

### 가. 교육과정 운영 형태

각 단위 학교의 현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순위로는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운영’이 61.8%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는 ‘취업에 중점을 둔 운영’이 21.1%로 나타났다. 3순위는 ‘진학과 취업으로 분리된 운영’이 9.6%로 나타났고, 4순위는 ‘진학에 중점을 둔 운영’이 7.4%로 나타났으며, 각 계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진학에 중점을 둔 운영	취업에 중점을 둔 운영	진학과 취업으로 분리된 운영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운영	계
농업계 고등학교	11 (16.4)	12 (17.9)	6 (9.0)	38 (56.7)	67 (100.0)
공업계 고등학교	34 (7.2)	106 (22.6)	42 (8.9)	288 (61.3)	470 (100.0)
상업계 고등학교	37 (7.0)	99 (18.8)	58 (11.0)	333 (63.2)	527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0 (0.0)	9 (47.4)	2 (10.5)	8 (42.1)	19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0 (0.0)	6 (15.0)	4 (10.0)	30 (75.0)	4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2 (8.5)	35 (24.6)	10 (7.0)	85 (59.9)	142 (100.0)
계	94 (7.4)	267 (21.1)	122 (9.6)	782 (61.8)	1265 (100.0)

\*  $\chi^2 = 27.08$ ,  $p < 0.05$

바람직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다. 1순위는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운영’으로 49.7%로 나타나고, 2순위는 ‘진학과 취업으로 분리된 운영’으로 26.0%로 나타나고, 3순위는 ‘취업에 중점을 둔 운영’, 4순위는 ‘진학에 중점을 둔 운영’으로 각각 23.1%, 1.2%로 나타났으며, 각 계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 바람직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진학에 중점을 둔 운영	취업에 중점을 둔 운영	진학과 취업으로 분리된 운영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운영	계
농업계 고등학교	3 (2.4)	19 (15.2)	20 (16.0)	83 (66.4)	125 (100.0)
공업계 고등학교	8 (0.9)	235 (26.5)	211 (23.8)	433 (48.8)	887 (100.0)
상업계 고등학교	16 (1.8)	185 (20.4)	262 (28.9)	445 (49.0)	908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1 (2.6)	9 (23.7)	9 (23.7)	19 (50.0)	38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0 (0.0)	19 (24.4)	20 (25.6)	39 (50.0)	78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0 (0.0)	68 (24.5)	80 (28.8)	130 (46.8)	278 (100.0)
계	28 (1.2)	535 (23.1)	602 (26.0)	1149 (49.7)	2314 (100.0)

\*  $\chi^2 = 38.34$ ,  $p < 0.05$

<표 5>와 <표 6>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와 바람직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 모두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운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진학과 취업으로 분리된 운영’이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서는 9.6%로 낮은 데 반하여,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서는 26%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학 과정과 취업 과정을 분리한 이원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원화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산업체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완성 교육과 계속 교육이라는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나. 코스제 교육과정 도입

코스제 교육과정이란 학과 및 학과군 내에서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능력에 맞게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스제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 교사의 64.4%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13.2%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코스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도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표 7〉 코스제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농업계 고등학교	5 (3.5)	16 (11.3)	24 (17.0)	69 (48.9)	27 (19.1)	141 (100.0)
공업계 고등학교	24 (2.5)	136 (13.9)	215 (22.1)	500 (51.3)	100 (10.3)	975 (100.0)
상업계 고등학교	16 (1.6)	95 (9.4)	239 (23.6)	581 (57.3)	83 (8.2)	1014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0 (0.0)	2 (4.8)	8 (19.0)	26 (61.9)	6 (14.3)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1 (1.1)	12 (13.3)	24 (26.7)	42 (46.7)	11 (12.2)	9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9 (2.7)	27 (8.1)	72 (21.6)	176 (52.7)	50 (15.0)	334 (100.0)
계	55 (2.1)	288 (11.1)	582 (22.4)	1394 (53.7)	277 (10.7)	2596 (100.0)

\*  $\chi^2 = 50.77$ ,  $p < 0.001$

또한, 코스제 교육과정은 ‘직업 교육 체제 혁신 방안(2005)’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혁신 방안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보통 교과 중심의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선택 교과에 의한 코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코스제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의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여건과 진로 지도의 개선, 산학 협력 활동의 강화 및 교사의 전문성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병욱, 2005).

## 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

현행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의무 교육기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나 학력이 저지는 학생을 불문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더구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진로 자체가 달라 교육목표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홍후조, 2005). <표 8>은 이러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 교사의 45.3%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이라고 응답하였고, 38.5%가 ‘현행대로 유지’, 15.0%가 ‘취학 전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0년’이라고 응답하였다. 계열별로도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기간을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현행대로 유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	취학 전 1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0년	기 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61 (43.3)	55 (39.0)	24 (17.0)	1 (0.7)	141(100.0)
공업계 고등학교	335 (34.1)	489 (49.8)	144 (14.7)	14 (1.4)	982(100.0)
상업계 고등학교	409 (40.2)	440 (43.3)	156 (15.3)	12 (1.2)	1017(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20 (47.6)	19 (45.2)	3 (7.1)	0 (0.0)	42(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32 (35.6)	43 (47.8)	15 (16.7)	0 (0.0)	90(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46 (43.6)	136 (40.6)	47 (14.0)	6 (1.8)	335(100.0)
계	1003 (38.5)	1182 (45.3)	389 (14.9)	33 (1.3)	2607(100.0)

\*  $\chi^2 = 23.82$ ,  $p > 0.05$

## 라. 학기당 이수 과목 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각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몇 과목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1순위는 ‘10과목 이내’가 57.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2과목 이내’가 25.4%로 나타났다. ‘11과목’ 이내, ‘14과목 이내’, ‘16과목 이내’는 각각 6.5%, 2.8%, 2.5%의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전체 계열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과목 이내’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 조사에서는 ‘12~13과목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이용순 외, 2005),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10~16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학기당 이수 과목 수에 관한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표 9〉 학기당 이수 과목 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10과목 이내	11과목 이내	12과목 이내	13과목 이내	14과목 이내	16과목 이내	계
농업계 고등학교	84 (59.2)	11 (7.7)	37 (26.1)	4 (2.8)	4 (2.8)	2 (1.4)	142 (100.0)
공업계 고등학교	597 (61.4)	48 (4.9)	225 (23.1)	58 (6.0)	24 (2.5)	20 (2.1)	972 (100.0)
상업계 고등학교	504 (49.8)	81 (8.0)	304 (30.0)	60 (5.9)	34 (3.4)	29 (2.9)	1012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27 (64.3)	3 (7.1)	9 (21.4)	1 (2.4)	1 (2.4)	1 (2.4)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54 (62.1)	5 (5.7)	21 (24.1)	4 (4.6)	1 (1.1)	2 (2.3)	87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222 (66.9)	19 (5.7)	60 (18.1)	13 (3.9)	8 (2.4)	10 (3.0)	332 (100.0)
계	1488 (57.5)	167 (6.5)	656 (25.4)	140 (5.4)	72 (2.8)	64 (2.5)	2587 (100.0)

\*  $\chi^2 = 54.63, p < 0.05$

### 3. 계열 및 기준 학과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의 5개 계열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계열 구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 교사의 43.5%가 ‘현행과 같은 5개의 계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계열 분리, 계열 신설 등의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6.7%였다. ‘현행과 같이 5계열로 구분하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의 의견은 각각 10.4%와 8.7%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적어도 계열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계열별로도 유사한 의견을 보였으며, 가사·실업 계열만이 ‘계열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실업 계열의 경우 자수과, 유아 교육과, 관광과 등 다양한 기준 학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 계열 구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현행과 같은 5개의 계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5개의 계열로 구분하되, 명칭 변경의 필요가 있다	계열 분리, 계열 신설 등의 계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기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65 (45.1)	17 (11.8)	41 (28.5)	18 (12.5)	3 (2.1)	144 (100.0)
공업계 고등학교	475 (48.6)	76 (7.8)	341 (34.9)	83 (8.5)	3 (0.3)	978 (100.0)
상업계 고등학교	413 (40.9)	111 (11.0)	395 (39.1)	81 (8.0)	11 (1.1)	1011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18 (42.9)	8 (19.0)	16 (38.1)	0 (0.0)	0 (0.0)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27 (31.0)	14 (16.1)	36 (41.4)	10 (11.5)	0 (0.0)	87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31 (39.1)	43 (12.8)	123 (36.7)	33 (9.9)	5 (1.2)	335 (100.0)
계	1129 (43.5)	269 (10.4)	952 (36.7)	225 (8.7)	22 (0.8)	2597 (100.0)

\*  $\chi^2 = 49.91$ ,  $p < 0.001$

다음으로 기준 학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기준 학과란 국가적인 수준에서 계열별 산업 분야의 근간이 되는 표준적인 학과를 의미한다(이용순 · 이병욱, 2005). <표 11>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계열별 기준 학과 구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학과 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7.8%로 가장 많았으나, ‘학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의견과 ‘학과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각각 31.1%와 19.2%로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도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이는 기준 학과의 신설, 폐지, 분리, 통 · 폐합을 통해 재정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과 이에 따른 기준학과 편제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 및 기술 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과 기준 학과 편제를 산업 구조와 기술 영역에 부합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표 11〉 계열별 기준 학과 구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학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현재의 학과 수가 적당하다	학과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40 (30.1)	63 (47.4)	25 (18.8)	5 (3.8)	133 (100.0)
공업계 고등학교	262 (28.8)	449 (49.3)	182 (20.0)	17 (1.9)	910 (100.0)
상업계 고등학교	3232 (34.3)	442 (47.0)	160 (17.0)	16 (1.7)	941 (100.0)
수산 · 해운계 고등학교	15 (38.5)	19 (48.7)	5 (12.8)	0 (0.0)	39 (100.0)
5가사 · 실업계 고등학교	22 (30.6)	33 (45.8)	15 (20.8)	2 (2.8)	72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84 (27.8)	140 (46.4)	74 (24.5)	4 (1.3)	302 (100.0)
계	746 (31.1)	1146 (47.8)	461 (19.2)	44 (1.8)	2397 (100.0)

\*  $\chi^2 = 19.56$ ,  $p > 0.05$

## 4. 교과 편제 및 내용

### 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

단위 학교의 교과목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82단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70단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로 나타났고,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76단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1.1%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64단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56단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4.8%와 11%를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전체 계열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표 12>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76단위 이상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70단위 이상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64단위 이상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각각 56단위 이상	기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36 (25.9)	52 (37.4)	24 (17.3)	20 (14.4)	7 (5.0)	139 (100.0)
공업계 고등학교	302 (32.3)	343 (36.7)	145 (15.5)	93 (9.9)	52 (5.6)	935 (100.0)
상업계 고등학교	306 (31.2)	971 (37.8)	144 (14.7)	94 (9.6)	67 (6.8)	982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7 (16.7)	21 (50.0)	6 (14.3)	6 (14.3)	2 (4.8)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33 (38.4)	27 (31.4)	13 (15.1)	10 (11.6)	3 (3.5)	86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94 (29.7)	109 (34.5)	39 (12.3)	51 (16.1)	23 (7.3)	316 (100.0)
계	778 (31.1)	923 (36.9)	371 (14.8)	274 (11.0)	154 (6.2)	2500 (100.0)

\*  $\chi^2 = 27.26$ ,  $p > 0.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현행의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를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향 조정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단위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는 국민공통기본 교과에 배당되는 56단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82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 교과는 82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와 같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에 대하여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의견 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이, 전체 교사의 46.9%가 보통 교과를 ‘36~45%’ 정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4%가 ‘46~55%’ 정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35%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56%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0.8%와 8.4%에 불과했다. 계열별로도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표 13> 보통 교과의 바람직한 이수 단위 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35% 이하	36~45%	46~55%	56% 이상	계
농업계 고등학교	14 (10.2)	71 (51.8)	40 (29.2)	12 (8.8)	137 (100.0)
공업계 고등학교	92 (9.81)	489 (52.0)	311 (33.1)	48 (5.1)	940 (100.0)
상업계 고등학교	97 (10.2)	395 (41.4)	344 (36.0)	119 (12.5)	955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3 (7.3)	24 (58.5)	12 (29.3)	2 (4.9)	41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16 (20.2)	34 (42.5)	21 (26.3)	9 (11.3)	8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40 (14.1)	129 (45.6)	100 (35.3)	14 (4.9)	283 (100.0)
계	262 (10.8)	1142 (46.9)	828 (34.0)	204 (8.4)	2436 (100.0)

\*  $\chi^2 = 65.38$ ,  $p < 0.001$

반면에 전문 교과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교사의 48.3%가 ‘56% 이상’ 전문 교과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1.3%가 ‘46~55%

정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36~45%' 정도와 '35% 이하'의 의견은 각각 8.5%와 1.9%에 그쳤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각 계열 별로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전문 교과의 바람직한 이수 단위 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35% 이하	36~45%	46~55%	56% 이상	계
농업계 고등학교	4 (2.9)	9 (6.6)	47 (34.3)	77 (56.2)	137 (100.0)
공업계 고등학교	11 (1.2)	53 (5.6)	406 (43.2)	470 (50.0)	940 (100.0)
상업계 고등학교	28 (2.9)	121 (12.7)	389 (40.7)	418 (43.7)	956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1 (2.4)	3 (7.3)	15 (36.6)	22 (53.7)	41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2 (2.5)	7 (8.8)	23 (28.8)	48 (60.0)	8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 (0.4)	15 (5.3)	126 (44.5)	141 (49.8)	283 (100.0)
계	47 (1.9)	208 (8.5)	1006 (41.3)	1176 (48.3)	2437 (100.0)

\*  $\chi^2 = 60.37$ ,  $p < 0.001$

<표 13>과 <표 14>를 종합해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바람직한 이수 단위 비율은 각각 35~45%와 55~65%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보통 교과보다는 전문 교과를 더 많이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앞서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이 계속 교육과 완성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학교 현장에는 진학 교육보다는 직업 교육을 우선시함으로써 계속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본래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나, 상당수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에서 이들에게 부여되는 동일계 특별 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 진학의 한 방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기도 한다. 실제로 진학 과정과 취업 과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진학 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비율이, 취업 과정에서는 전문 교과의 이수 비율이 높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이용순·이병욱, 2005).

## 다. 전문 교과 편제

현행 교육과정은 각 계열별로 필수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표 15>는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응답 교사의 41.1%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로 응답하였고, ‘계열별 필수 과목을 지정하되, 과목 구성을 수정한다’와 ‘계열별 필수 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가 각각 39.3%와 18.7%로 응답하였다. 계열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필수 과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표 15〉 계열별 필수 과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계열별 필수 과목을 지정하되, 과목 구성을 수정한다	계열별 필수 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기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65 (45.5)	53 (37.1)	25 (17.5)	0 (0.0)	143 (100.0)
공업계 고등학교	379 (39.0)	346 (35.6)	240 (24.7)	7 (0.7)	972 (100.0)
상업계 고등학교	442 (44.2)	411 (41.1)	133 (13.3)	15 (1.5)	1001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17 (40.5)	18 (42.9)	6 (14.3)	1 (2.4)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34 (39.1)	39 (44.8)	14 (16.1)	0 (0.0)	87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21 (36.4)	147 (44.3)	64 (19.3)	0 (0.0)	332 (100.0)
계	1058 (41.1)	1014 (39.3)	482 (18.7)	23 (0.9)	2577 (100.0)

\*  $\chi^2 = 58.85$ ,  $p < 0.001$

이 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계열별 필수 과목은 현행과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계열에서 필수 과목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가사·실업 계열에서는 다른 계열에 비해 과목 구성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는 가사·실업 계열에 다양한 기준 학과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 교과 편제는 앞서 논의했듯이 21세기 산업 구조와 기술 영역에 부합하도록 계열과 기준학과 편제가 재구조화되면 이에 따라 재편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제 전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내용에 대한 의견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보통 교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16>과 같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가 89.4%로 우세하게 나타났고, ‘현행과 같이 구성해야 한다’는 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각 계열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다수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통 교과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stigma)으로 인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저학력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장석민 외(1996)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보통 교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현행 7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논의했듯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62.6%)이 높아지면서<sup>3)</sup> 보통 교과의 내용과 수준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아야 한다는 의견도 배제할 수는 없어, 이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보통 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현행과 같이 구성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기타	계
농업계 고등학교	15 (10.6)	124 (87.3)	3 (2.1)	142 (100.0)
공업계 고등학교	60 (6.1)	897 (91.8)	20 (2.0)	977 (100.0)
상업계 고등학교	101 (10.0)	888 (87.9)	21 (2.1)	1010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4 (9.5)	38 (90.5)	0 (0.0)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12 (13.3)	77 (58.6)	1 (1.1)	9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30 (9.1)	293 (88.8)	7 (2.1)	330 (100.0)
계	222 (8.6)	2317 (89.4)	52 (2.0)	2591 (100.0)

\*  $\chi^2 = 14.71, p > 0.05$

3) 이용순(2005)의 연구의 기초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국의 729개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 681개 학교의 상급학교 진학 비율이 6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내용 수준이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비추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의 결과는 <표 17>과 같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16.3%인 데 비하여, ‘적절하지 않다’와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45.5%로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농업 계열과 공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와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상업 계열과 가사·실업 계열에서는 ‘보통이다’를 제시한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의 전문 교과 내용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렵게 제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문 교과 내용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내용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에 맞게 선정·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결과는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의견이 14.8%인 데 비하여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8%로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농업 계열과 공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에서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상업 계열과 가사·실업 계열은 ‘보통이다’를 제시한 의견이 많았다.

<표 17> 전문 교과 내용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계
농업계 고등학교	13 (9.0)	57 (39.6)	46 (31.9)	27 (18.8)	1 (0.7)	144 (100.0)
공업계 고등학교	79 (1.8)	429 (43.6)	338 (34.3)	133 (13.5)	6 (0.6)	985 (100.0)
상업계 고등학교	48 (4.7)	345 (34.0)	451 (44.4)	171 (16.8)	0 (0.0)	1015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4 (9.5)	17 (40.5)	12 (28.6)	9 (21.4)	0 (0.0)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4 (4.4)	23 (25.6)	38 (42.2)	25 (27.8)	0 (0.0)	9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22 (6.6)	146 (44.1)	110 (33.2)	51 (15.4)	2 (0.6)	331 (100.0)
계	170 (6.5)	1017 (39.0)	995 (38.2)	416 (16.0)	9 (0.3)	2607 (100.0)

\*  $\chi^2 = 69.16, p < 0.001$

〈표 18〉 전문 교과와 내용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에 맞게 선정·조직된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농업계 고등학교	11 (7.7)	54 (37.8)	48 (33.6)	28 (19.6)	2 (1.4)	143 (100.0)
공업계 고등학교	44 (4.5)	400 (40.8)	381 (38.8)	144 (14.7)	12 (1.2)	981 (100.0)
상업계 고등학교	44 (4.3)	367 (36.2)	465 (45.9)	128 (12.6)	9 (0.9)	1013 (100.0)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3 (7.1)	16 (38.1)	13 (31.0)	9 (21.4)	1 (2.4)	42 (100.0)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2 (2.2)	26 (28.9)	46 (51.1)	14 (15.6)	2 (2.2)	90 (100.0)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	13 (3.9)	132 (39.9)	148 (44.7)	37 (11.2)	1 (0.3)	331 (100.0)
계	117 (4.5)	995 (38.3)	1101 (42.3)	360 (13.8)	27 (1.0)	2600 (100.0)

\*  $\chi^2 = 35.07$ ,  $p < 0.05$

직무 분석은 교육과정 개발 방법 중 기초적이며,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산업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은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분석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과 각 학과장 및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설문지)는 관련 문헌 연구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항목, 계열 및 기준 학

과에 관한 항목, 교과 편제 및 내용 구성에 관한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요구 조사는 우편에 의한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회수율은 85.9%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각 선택형 문항은 문항별로 계열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개방형 문항은 계열별로 응답 내용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묶어서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개선 요구 분석 결과와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에 대하여 교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완성 교육과 계속 교육의 성격을 모두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로는 ‘진학 교육’보다는 ‘기초적인 직업 능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하여 교사들은 진학과 취업을 절충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학 과정과 취업 과정을 분리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즉, 학습자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의견은 물론,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즉,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총 이수 단위 감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 노동 시장의 파트너십 구축, 산학 일치형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기초능력의 강화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에 대하여 교사들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즉,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기간을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통 교과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보통 교과의 내용과 수준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아야 한다는 의견도 배제할 수는 없어, 이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기당 이수 과목 수에 대하여 많은 교사들은 현행과 같이 10과목 이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10~16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정(이용순·이병욱, 2005)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 구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계열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행과 같은 5개 계열의 유지와 더불어 계열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교육과정상의 기준 학과에 대해서는 현행 학과 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준 학과 수와 편제에 대한 재정비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과 기준 학과 편제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산업 구조와 기술 영역에 부합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82단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의 하향 조정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는 반드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바람직한 이수 단위 비율에 대하여 교사들은 보통 교과 35~45%, 전문 교과 55~65%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보통 교과보다는 전문 교과를 더 많이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본래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나, 동일계 특별 전형 등 대학 진학의 한 방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 교과를 이수함에 있어 코스제 교육과정에 대하여 상당수의 교사들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스제 교육과정은 ‘직업 교육 체제 혁신 방안(2005)’에서도 제안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여건과 진로 지도의 개선, 산학 협력 활동의 강화 및 교사의 전문성 등을 높일 수 있다(이병욱, 2005). 또한, 계열별 필수 과목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행과 같이 계열별 필수 과목의 지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과목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만큼이나 수정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계열별 필수 과목을 포함한 전문 교과 편제는 앞서 제시한 계열과 기준 학과 편제가 재구조화되면 이에 따라 재편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제 전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계열 및 기준 학과, 전문 교과의 명칭 변경, 분리, 통·폐합, 신설, 폐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 교과 내용에 대하여 교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렵게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에 맞게 선정·조직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 교과의 내용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조직하는 것은 물론, 직무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 개발 기간의 확보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들의 의견이 교육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됨으로써 ‘교육과정의 전문가’, ‘교육과정의 실천가’로서의 교사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실태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 통계**. 교육인적자원부.
- 김선태·박윤희(2002).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승일 외(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 교육 체제 혁신 방안**. 국정 보고 회의 자료.
- 박도순 외(2004).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직업 교육 체제 혁신 방안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박도순·홍후조(2006).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제3판). 서울: 문음사.
- 신태주(2003). **한국 실업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욱(2005). 직업 교육 체제 혁신 방안 및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연계한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일고(一考). **직업교육연구**, 24(2), 133-158.
- 이용순 외(2004).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순 외(2005). **실업계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순(1998). 제 7 차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창간호, 247-282.
- 이용순·옥준필(1997).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조사. **직업교육연구**, 16(2), 51-72.
- 이용순·이병욱(200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성·정향진(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방향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외(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 홍후조(2005). 일반계 고교에서 상이선택 교육과정의 실현 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3(4), 175-206.

• 논문 접수 : 2006년 10월 13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11월 15일 / 게재 승인 : 2006년 11월 27일

## ABSTRACT

### Needs Assessment for National Curriculum Improvement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Yong-Soon Lee(Research Fellow, KERIS)

Hye-Rim Park(ABD, Korea University)

Hoo-Jo Hong(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ssess vocational teachers' needs toward curriculum of vocational high school and to collect the basic data for curriculum improvement. The items of questionnaire were composed of schoo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bjectives of vocational high school, planning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course tracks of department, organizations and contents of subject matter areas, etc.

Survey was performed by mailing method. The response rate was 85.9%, and analyzed total 2,666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handled by SPSS/PC+ program, and analyzed frequency and percent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curriculum reform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were propos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objectives of vocational high school need to be clearly stated in order to govern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Second, it needs to be restructured that course tracks of department, compositions of vocational subjects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to coincide with hi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f 21th century knowledge info-age.

Third, if we consider recent tendency to seek both continuing and terminal education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 the number of graduation credits units needs to be lowered particularly in vocational subjects for the benefits of college-bound students.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high school and career plan of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in the selection of the themes and contents of general subjects.

Fifth, the curriculum of vocational high school must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job analysis and needs of related industries.

Key Words : curriculum of vocational high schools, continuing education, terminal education, needs assessment

